

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는 대동맥 전위증에서의 동맥전환술

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

서동만·윤태진·송 현·이재원·송명근

1991년 4월부터 1996년 7월까지 25명의 환자가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는 대동맥 전위증의 진단으로 동맥전환술을 시행받았다. 남녀 성비는 16:9로 남아가 많았고, 수술시 연령은 생후 6일에서 7개월로 평균 28.7일로 이중 22명(88%)이 1개월 미만이었다. 3명의 환아는 수술전 폐동맥 교약술(Pulmonary Artery Banding)을 통한 좌심실 단련을 거쳐 동맥 전환술을 시행하였다. 관상동맥의 유형은 Yacoup A형이 14명(56%)으로 가장 많았고, 기타 D형이 4명(16%), 비특이형이 7명이었다. 수술 직후 1명(4%)이 관상동맥 부전으로 사망하였고, 2명(8.3%)의 환아가 추적관찰 중 사망하였다. 이들 2명의 환아중 1명은 관상동맥 유형이 단일 관상동맥이었으며, 다른 한명은 우심실 유출로 협착으로 심도자 확진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였다. 22명의 생존자들은 평균 30.9개월의 추적기간을 통해 전례에서 심에코를 시행하였다. 심에코상 7명(29%)의 환아가 경도의 대동맥판 폐쇄부전을 보였고, 1명의 환아가 중등도의 폐동맥 분지 협착을 나타내어 재수술을 시행받았다. 수술 사망율을 포함한 5년 생존율은 $87 \pm 7.1\%$ 였다. 결론적으로 심실 중격결손을 동반하지 않는 대동맥전위증에서의 동맥전환술은 비교적 낮은 사망율과 유병율을 보였으며, 신대동맥판(Neo-aortic valve)의 폐쇄부전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이 요망된다고 하겠다.